불제자 품 돌아온 '우여곡절' 고찰

대만 빠이윈선사, 수차례 매각 · 경매 홍역

박영빈 객원기자

공사비 문제로 매각, 한때는 중국공산당의 교육시설로 전락했던 고찰이 다시 불자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 소식을 4월 17일 대만의 '타이쓰 신문' '야후 타이완' 등의 현지 매체가 대서특필했다.

대만 중부의 장화현(彰化縣) 얼수이(二水)지역에 소재한 빠이윈선사(碧雲禪寺)는 일본점령기인 1922년 지역주민들의 보시로 세워졌다. 지리적으로 장화와 난터우(南投)현의 중간에 위치해 지역 신앙의 중심으로 사랑받아왔다. 또 장화현의 역사건축으로 등록된 고찰로서 비구니 스님들이 운영해왔다.

10년 전 사찰의 증축공사를 맡았던 건설업자 웨이밍런 씨는 공사비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을 문제로 사찰을 법원에 기소, 법원은 웨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찰 측은 계약서에 추가금이 명시되지 않았고, 어음이 위조됐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012년 웨이 씨는 법원의 명령을 구실로 스님들을 모두 내쫓고, 절에 모셔진 불상과 경전, 불구들을 모두 철거했다. 더욱이 정치적으로 대만이 중국에 흡수돼야 한다는 중국통일파였던 그는 사찰에 중국 공산당 상징물이나 선전포스터를 설치, 법당에 마오쩌둥의 초상화와 오성홍기를 게양했다. 사찰의 이름도 '중화인민공화국 타이완성 사회주의 민족사상 애국교육기지'라는 이름으로 개칭해 중국통일파의 거점지로 활용했다.

이에 지난해 9월 이러한 상황이 외신들을 중심으로 알려지자 장화현의 웨이밍구 현장은 "웨이밍런 씨의 행동은 대만의 존엄과 지역주민의 감정을 해치는

10년 전 불사 비용 문제로
공사업자에게 사찰 넘어가
中통일파 거점기지 활용되다
최근 스님들 다시 매입나서

일로 강하게 비난한다"고 표명했다. 또한 불교색을 지운다는 이유로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을 훼손한 것이 확인됐기에 자진해서 복원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철거를 집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웨이밍런 씨는 "얼수이 기지(빠이윈선사)가 무너져도 통일파는 반드시 재기할 것"이라며 "현정부의 강제집행은 우리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비겁한 수단으로, 오히려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맞섰다.


당국에 의해 강제 철거되고 있는 빠이윈선사의 모습. 사진출처=야후 타이완 뉴스

결국 같은 달 26일 장화현 정부는 철거작업을 개시했다. 현 측은 사찰의 기단 부분만을 문화재로 인정, 기단위에 세워진 건축물 전체를 불법건축물로 간주해 철거했다. 결국 기존의 사찰 건물이 모두 철거됐다.

정부는 토지와 사찰의 명의자였던 웨이밍런 씨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철거비용을 청구했으나 이에 불응, 법원은 명의자의 은행계좌와 채권들을 압류하고 사찰을 포함한 5건의 부동산을 경매에 올렸다.

지난 16일 열린 법원경매에서 최처 낙찰가 1600만 대만달러(한화 약 5억9000만원)로 시작된 빠이윈선사는 1612만 대만달러(한화 약 5억9500만원)에 낙찰됐다. 경매에 입찰한 이는 단 한 명으로 빠이윈선사의 주지인 화이종 스님이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빠이윈 선사의 파밍 스님은 "낙찰은 받았지만 필요한 재원을 모아야한다"고 말했다. 먼저 낙찰보증금으로 지불해야하는 320만 대만달러(한화 약 1억2000만원)를 시작으로 재건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 마련이 시급하다. 스님들은 "다시 사찰이 불제자들의 손에 돌아온 것은 기쁘지만 미래가 너무나 불명확하다. 지금은 그리 생각하고 싶지 않다"며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해외 순회 마친 걸작 간다라 유물

파키스탄 페샤와르 박물관 100년 만에 대여

파키스탄의 페샤와르 박물관(Peshawar Museum)은 간다라 불교미술의 걸작을 소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간 해외 순회전시를 위해 대여한 유물들이 전시를 마치고 돌아왔다고 4월 16일 현지매체 '더운 페이퍼'가 전했다.

페샤와르 박물관 측은 "파키스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불안한 정세로 인해 많은 학자들과 관광객들이 직접 방문하지 못한다"며 해외 순회 전시를 하게 된 계기를 전했다. 해외 순회 특별전은 지난 2017년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만난 붓다'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당시 페샤와르 박물관에서는 40여점의 주요 소장품을 출품했다.

한국 특별전에 주목한 스위스 취리히의 리트베르그 박물관(Rietberg Museum)은 페샤와르 박물관과 협의 끝에 지난해 12월 12일부터 4개월간 '그 다음의 멈춤, 열반(Next Stop, Nirvana)'라는 이름의 특별전을 개최했다.

이 전시를 위해 페샤와르 박물관은 높이 2.5m의 석조불 입상을 특별히 대여했다. 1909년 영국 고고학팀에 의해 발굴된 이 불상은 페샤와르 박물관은 물론, 현존하는 간다라 불상 중 온전한 입상으로는 가장 크다.

약 100년 만에 2000만 달러의 보험을 들여 본래의 자리에서 옮겨진 불상은 스위스 현지에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3개월간 3만5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불상을 관람하기 위해 박물관을 방문했다.

유물 관리를 위해 페샤와르 박물관에서 파견된 아시프 라자 연구원은 "지난 수십 년간 페샤와르에서 이 불상을 본 관람객보다, 단 3개월간의 전시회가 더 많은 관람객을 불러들였다"며 뜨거운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조우인 객원기자


리트베르그 박물관에 전시된 간다라 미술 최대급의 석조 불입상. 사진출처=리트베르그 박물관

태국 승려, 정신질환자 무차별 폭력

"아들과 노는 모습 위험" 진술
가해 승려, 타 지역 이적 처분


자신의 폭행사건에 참회하고 있는 프라 사티트 스님(사진 오른쪽). 사진출처=더 썬

비폭력과 자비를 가르치는 불교의 가르침에서 폭력은 큰 악업으로 꼽힌다. 그러나 대표적인 불교국가 태국에서 스님에 의한 폭력사건이 일어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정신질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6일 영국의 '데일리 메일' '더 썬', 일본의 '토카나' 등의 외신들이 이 소식을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4월 8일 아침 일어났으나 최근 현지 언론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태국 중부에 위치한 사뭇쁘라깐(Samut Prakan)주의 프라 쁘라뎅(Phra Pradaeng)지구에 소재한 모 사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사찰 CCTV에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CCTV 영상에는 가해자인 프라 사티트 스님(38)이 도주하는 피해자인 녹 씨(30)를 붙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 땅에 쓰러진 녹 씨를 계속해서 발로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녹 씨가 얼굴 앞에 손을 모아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프라 사티트 스님은 화가 조금 진정된 후에 떠나가는 녹 씨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화난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이후 귀가한 녹 씨의 몸에서 폭행의 흔적을 본 그의 어머니가 사찰에 항의 방문 후 경찰에 신고했다. 더욱이 피해자인 녹 씨는 정신질환자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프라 사티트 스님은 진술에서 "사찰에 함께 살고 있는 아들과 녹 씨가 노는 모습이 너무 위험해 보였다"고 말했다. 녹 씨가 아이를 다루는 모습이 너무 거칠어 다칠 위험이 있는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이다. 스님은 당시 상황에 대해 "아들의 안전 확보가 우선이어서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할 수 없었다"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사찰 주지인 프라 아디싹 스님은 해당 폭력사건에 "사티트 스님은 지난 2년간 사찰에서 훌륭하게 소임을 맡아왔고 공헌을 해왔으나 이번 일은 넘어갈 수 없다"며 "해당 사찰에서 추방, 타 지역 사찰로 승적을 옮겼다"고 전했다. 또한 "이 처분에 대해서 프라 사티트 스님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지역경찰은 프라 사티트 스님이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 사죄했고, 사찰의 결정에 따라 타 지역으로 추방되는 선에서 가족들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언론의 주목과 재수사에 대한 여론이 강화되면서 "불교계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교구법에 의해 심의될 것이며, 경찰과 지역장들이 심의를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세계인 함께한 日 봉축행사

47개국 불교대표 염불종 총본산에 모여

부처님오신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요즘, 일본에선 먼저 봉축행사가 열렸다. 4월 18일 일본의 '재팬타임즈'는 세계 47개국의 대표들이 일본의 무료쥬지(無量壽寺)에 모여 봉축행사를 봉행했다고 전했다.

음력으로 부처님오신날을 지내는 다른 아시아권과는 달리 일본은 메이지 유신부터 양력 4월 8일을 부처님오신날로 지내고 있다. 이 중 효고(兵庫)현 가토(加東)시에 소재한 무료쥬지는 염불종(念仏宗) 총본산으로서 매년 성대한 봉축행사를 진행하기로 유명하다.

2014년 염불종에서는 매년 4월 8일을 '불교의 날'로 지정, 종단과 관련된 세계 각국의 인사들을 초청해 봉축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불교의 날 봉축행사에서는 47개국의 불교지도자, 정부인사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봉축행사에는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서 내빈들이 참석해 화제를 모았다. 우간다, 콩고, 케냐, 탄자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불교지도자들과 정부대표들이 참석했다. 우간다 정부를 대표하여 참석한 키와누카 세칸디(Kiwanuka Sekandi) 부통령은 "부처님의 탄신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모인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봉축행사를 통해 다문화와 다종교간의 존중과 인류의 일체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염불종 측은 이번 봉축행사에 주최 측 집계 약 10만7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불교의 날은 46개국에서 같은 날 기념식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행사는 예불과 함께 관불의식 등의 내용으로 전해졌다.

염불종의 법주 신카이(真海) 스님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 세계에 평화와 안녕을 가져오는 부처님 가르침이 널리 흥성하길 바란다"고 회향했다. 조우인 객원기자



